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외상 중증장애인의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

정읍시가 외상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가족들의 경제적·심리적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최대 5만원까지 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신규 복지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2세(25개월) 이상부터 만 64세 이하의 외상 중증장애인이다. 세부 요건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에서 배변, 배뇨, 화장실 가기 항목이 4단계에 해당하거나 일상생활 동작 검사에서 배변·배뇨 항목 점수가 2점 이하여야 한다.

지원 품목은 기저귀와 패드, 물티슈, 위생 장갑, 깔개 매트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위생용품 전반이다. 본인이 지출한 구입비의 50%를 월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중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정읍시 청년지원센터(센터장 안태평) '청정시대'가 지역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돕는 '2026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오는 20일 15주 과정의 '중기 2기'를 개강하며 미취업 청년들의 체계적인 사회 진입 준비를 돕는다.

이번 중기 2기 과정은 청년들의 자기 이해와 실무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1대1 맞춤형 상담을 시작으로 생활 경제 교육, 심리·직업 적성 검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교육, 인공지능(AI) 활용 실무, 직업 체험, 원데이 클래스 등 다채롭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꾸려진다.

특히 15주간의 전체 수업을 모두 이수한 청년에게는 최대 220만원의 활동 지원비가 지급돼 참여자들의 학습 열의와 경제적 자립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미니수박' 첫 정식 시작

'고창수박'의 명성 잇는 고창수박 버전2, '고창미니수박' 육성 박차

고창군이 '고창수박'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미니수박'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고창 미니수박 첫 정식 현장을 찾은 오성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미니수박 모종을 직접 심어보고, '고창미니수박연합회(회장 강대성)' 회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고창군 미니수박은 2017년 재배를 시작으로, 고창미니수박연합회를 중심으로 블랙망고수박, 블랙보스수박, 애플수박 등 중·소과종 수박을 재배하고 있다. 재배면적은 약 90ha로 2025년 기준 전국 미니수박 재배면적의 약15%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올해 생산되는 미니수박은 고창황토배기유통과 도매시장, 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전국으로 출하될 예정이다.

특히 1인 가구 비율이 36.1%(24년 인구총조사)를 넘어서는 등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소형 과일에 대한 수



13일 고창 미니수박 첫 정식 현장을 찾은 오성동 농기센터 소장은 미니수박 모종을 직접 심어보고, '고창미니수박연합회(회장 강대성)' 회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요가 증가해 미니수박에 대한 유통업체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니수박은 다양한 품종과 색, 모양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며, 일반 수박보다 판매 가격이 높게 형성돼 농가 소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고창미니수박연합회에 따르면 이번에 정식된 미니수박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될 예정이다. 고창미니수박연합회는 2022년 지역 내 6개 미니수박 작목반이 통합돼 출범했으며, 현재 약 1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병원 분만산부인과가 노후장비 교체 국비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초음파 장비, 멸균기 등 총 25종 37대의 의료장비를 교체한다.

고창군, 분만산부인과 의료장비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 국비지원 선정...고창병원 산부인과 의료장비 37대 교체

고창군이 지역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환경조성을 위한 의료장비 개선에 나선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 분만산부인과 노후장비교체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총 4억3300만원(국비 2억1700만원, 지방비 2억1600만원)을 투입해 고창병원 산부인과 초음파 장비, 멸균기 등 총 25종 37대의 의료장비를 교체한다.

고창병원은 2015년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임산부들의 분만과 산부인과 진료를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이다. 이곳에서 아이를 낳은 고창

군민은 분만진료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다.

이번 장비교체를 통해 지역 임산부들이 먼 거리 이동없이 고창 지역내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창군은 분만취약지 의료서비스 개선과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보건복지부 '분만산부인과 노후교체장비 사업'은 분만취약지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여건을 개선을 목적으로 국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부안형 기본사회 정책 발굴 본격화

바람연금 기반 '부안형 기본사회' 실현 속도... 군민 삶의 질 높일 중장기 로드맵 수립 논의

부안군은 16일 부안형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군민 누구나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부안형 기본사회 정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군은 정부의 민생 안정 기조에 발맞춰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와 농어촌 소득 기반 정책을 결합해 군민의 실질적 경제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기존 사



군민들을 기본사회라는 틀 안에서 재구조화하고 확대해 군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해상풍력 수익과 국·도

비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연계함으로써 군민 누구나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부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기본금융, 기본기회 분야로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 로드맵,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기반 기본소득, 지역순환 먹거리 체계인 푸드플랜에 기반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 청년 및 학생 지원 확대 등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체감형 정책들이 논의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본격 시행

부안군은 공직사회 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군민 체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26년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즉각적이고 확실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

시키는 데 방점을 뒀다.

2026년 운영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핵심 성과 지표의 강화다.

군은 기존 지표에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중앙·전북특별자치도 제안 공모 참여, 규제 개선 사례 선정 등을 신규로 추가했다.

또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위원회의견 제시 활용 배점을 기존보다 2배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는 간부 공무원들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리더 마일리지 부여자 범위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전체로 확대했다. 마일리지 보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투트랙으로 운영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이동노동자 휴게쉼터 조성 나서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 카페·편의점 활용한 상생 모델 구축

정읍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취약 노동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450만원을 확보하고, 관내 카페와 편의점 등 기존 민간 상가를 활용한 실효성 있는 이동노동자 휴게쉼터 조성에 나선다.



이번에 추진하는 쉼터 운영 사업은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해 조성하는 기존의 고정형 거점 쉼터 방식에서 벗어나, 이동노동자들의 실제 업무 동선과 생활권을 적극 반영한 민간 협력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 내 상업시설을 휴게쉼터로 지정함으로써 배달 종사자와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노동자의 쉼 권리 보장을 넘어 쉼터로 지정된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협력 기반을 다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쉼터 이용을 독려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정의 안전 교육을 수료한 이동노동자에게 지정된 휴게쉼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6만원 권의 전용 선불카드를 지급해 실질적인 휴식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취약 근로자를 위한 심층 상담과 권리 구제 지원 업무도 꼼꼼히 행하고 있다. 현재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에 자리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를 통해 노동 상담과 법률 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하며,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